

이재명 “국힘이 대장동 공공개발 막아”

민주 “대장동 국힘 게이트” 국민의힘 “이재명 게이트” 여야, 경기도 국감서 날선 공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측근들과 함께 부정한 거래를 한 ‘이재명 게이트’라고 규정했으나, 민주당과 이 후보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 후보를 ‘그분’으로 지칭하며 “‘아수라의 제왕’인 그분은 누구인가. 한번 검토해보려고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 “단 1원도 안 받았다는 설계자는 어떤 사람일까. 돈을 만든 자, 돈을 가진 자 위에서 돈을 지배하는 자”라며 “그분은 돈을 쓰고 싶은 곳에 쓰자 할 때 그분의 의사대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그게 곧 그분의 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사 자격으로 국감에 참석한 이 후보는 “이 사건은 명백하게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못 하게 막았고 국민의힘(사람)이 뇌물을 받아서 민간개발을 주장했고, 국민의힘 의원이 LH 국감에서 압력을 넣어 LH에 공공개발을 포기시켰다”고 ‘국민의힘 게이트’임을 부각했다. 이 후보는 “저는 최대 1조원에 이를 수 있는 이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려 했고, 그걸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나마 절반 또는 70%라도 환수한 게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돈을 받은 자가 ‘그분’이 아니라 ‘그분들’이다. 국민의힘이 폭로한 ‘50억 클럽’에 들어간 분은 확산돼 전 국민의힘 의원 겸 박근혜정부 민정수석, 박근혜정부에서 야당 추천으로 특검이 된 박영수 전 특검, 최재경 박근혜정부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된 권순일 대법관, 김수남 박근혜정부 당시 검찰총장 등”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 후보의 화천대유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이정수 서울 중앙지검장 발언을 근거로 “이 지사를 근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팩트와 틀리다”고 반박했다.

또 이 후보는 이날 국감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을 만들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제가 한 설계라는 것은 (공공개발이 아닌) 민관합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물려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확실하게 고액의 개발이익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것이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다는 지적에 대해 “(이익환수) 비율이 아닌 고정형으로 한 것이 이번은 예정된 이상의 이익이 생기면 민간 사업자가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제가 인사를 잘못한 것, 제가 지휘하는 직원 일부가 오염돼서 부패에 관여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가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집값 때문에 고통받고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일할 맛 안 나고 소외감, 배제감, 분노가 생기는데 제가 그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쨌든 (개발 이익) 100%를 환수하지 못하는 것은 제 부족함”이라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윤석열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진 왼쪽부터 황운하 의원, 민병덕 총선개입 국기문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부단장, 박주민 TF 단장, 김용민 최고위원,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송영길 “대장동 의혹 12월 전 마무리해야”

이재명 당선돼도 새로운 정권창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8일 ‘대장동 의혹’ 관련 “대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결론을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나와 ‘12월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 안에 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특검을 해서 대선 내내 이걸 검찰이 ‘선거’를 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며 “그 전에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지금 단계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 후보 선대위 출범 시점에 대해 “10월 말쯤 끝나면서 하나로 통합되고 또 거리두기도 좀 완화되고 그러면 좀 더 많은 당원이 모여서 컨벤션 효과도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서 “경기도 국감이 끝나고 나면 경기도지사직을 사표를 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이 후보가 정식으로 이낙연 전 총리를 찾아뵙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월 5일 국민의

힘 후보 결정과 상응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총리나 각료나 핵심 역할을 했던 분은 아니고 경기도지사도 지방행정을 했고 핵심 주류 그룹이 아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돈을 누가 가져갔는지 밝혀줄 것을 검찰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당장 컨엔파트너스를 통해 최기원 SK 그룹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이란 분이 400여억 원의 돈을 지급한 경우부터 다 수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감 브리핑

산업부 R&D 예산 지원 호남·제주권 10% 불과

송갑석 국회의원

18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부 R&D 예산 16조 2889억원 중 호남·제주권에는 10%에 불과한 1조6357억원이 지원됐다.

호남·제주권 중 광주와 전남은 각각 5114억원과 5245억원으로 전체의 3.1%와 3.2%, 전북과 제주는 각각 4614억원과 1385억원으로 전체의 2.8%와 0.9%를 지원받는데 그쳤다.

가장 많은 R&D 지원이 이뤄진 곳은 경기도로 총 3조4072억원, 전체의 20.8%를 차지했으며 서



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5년간 총 6조8281억원으로 전국 산업 R&D 예산의 41.9%가 투입됐다.

영남권은 4조5099억원으로 28%, 강원·충청권은 3조3152억원으로 20%가 지원됐다.

송갑석 의원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지역주도형 뉴딜을 통해 국가발전의 축을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데 있다”며 “호남권의 AI·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을 비롯해 각 지역에 특화된 산업 발전에 더 과감하고 균형잡힌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우울증 등 5대 정신과 질환자 증가

김원이 국회의원

지난해 우울증과 수면장애(불면증), 공황장애, ADHD, 틱장애 등 5개 주요 정신과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사람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병원방문을 꺼려하면서 다른 주요질환의 환자수가 감소한 것과는 대조되면서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증을 비롯해 향후 국민의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시)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 건강생활 통계정보’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병원을 찾은 발길이 줄어들면서 작년에는 폐렴 등의 호흡기질환을 비롯해 백내장, 치질 등 기존 다빈도질환의 환자수가 일제히 감소했다.

폐렴으로 치료를 받은 인원은 2019년 140만



5828명에서 지난해 67만 309명으로 52.3%나 급감했다. 독감(인플루엔자) 환자 역시 크게 줄었는데, 2019년 진료인원 177만4020명에서 지난해 78만2877명을 기록해 55.8% 감소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결핵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국민도 모두 감소해, 코로나19를 제외한 주요 호흡기 환자가 줄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인 백내장 역시 감소했다. 백내장 진료인원은 2019년 148만 1312명에서 2020년 140만2905명으로 5.3% 줄었다. 우울증 환자수는 최근 5년간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2019년 79만8787명에서 지난해 83만 1721명으로 4.1% 늘었다.

농협 무기질 비료 97% 독점 구매

주철현 국회의원

국내 무기질비료의 97%를 독점구매하는 농협(경제지주)이 시장재배제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 생산원가의 절반 정도에 비료를 구매해, 비료생산업체의 적자가 누적되고, 공정거래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군) 국회의원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가 계통구매 방식으로 무기질 비료를 구매하면서, 생산원가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가격으로 비료를 납품하는 것에 대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농협경제지주는 매년 가을 지역농협을 통해 이듬해 무기질 비료 구매에 대한 수요조사 후, 그해 연말 국내 7개 비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통구매를 통해 무기질 비료



를 구매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의 계통구매를 통한 무기질비료 구매는 국내 무기질비료 시장의 97%를 점유하고 있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500억원대 구매를 기록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의 비료, 농약, 농기계, 시설자재 등 영농자재에 대한 계통구매 규모는 연 2조5000억 원대를 넘는다.

주 의원은 “농협경제지주는 국내 무기질 비료 구매시장의 97% 점유라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해, 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비료를 납품받고 있는데, 이는 비료 납품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해 비료시장을 교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h3>상가매매 (상무지구)</h3> <p>1) 40평(전용) 2억5천(용1억) 보1천 월100</p> <p>2) 60평(전용) 4억5천(용3억) 보2천 월200</p> <p>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7억(용 4억) 월수익 280만(보4천)</p> <p>(사무실 리모델링, 바, 유흥,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010-6670-9800</p>	<h3>장성 토지(매매 분양)</h3>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p> <p>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p> <p>[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p>010-6670-9800</p>	<h3>발목펌프</h3> <p>특허받은 표준형</p> <p>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각종 성인병을 완전 해결시켜줍니다. 직경 10cm, 길이 30cm, 높이 70cm 편백나무 반원에 운동하는데 층간소음에 지장이 없는 운동효과가 확실한 특허 표준형입니다.</p> <p>★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운동기구 ★특허등록 제30-0636197 발목운동기구</p> <p>표준형 발목펌프+타이머 가격 40,000원 표준형 발목펌프 가격 25,000원 편백경침 스폰지 부착 가격 13,000원</p> <p>제일건강 010-7510-2000 광주 남구 서문대로 687 수협 2층</p>	<p>69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p> <p>• 지역안내 •</p> <table border="1"> <tr> <td>북 구</td> <td>• 동 광 266-1920</td> <td>• 문 흥 266-1960</td> </tr> <tr> <td></td> <td>• 북광주 525-3761</td> <td>• 신 안 222-8171</td> </tr> <tr> <td></td> <td>• 양 산 571-7658</td> <td>• 오 치 266-7601</td> </tr> <tr> <td></td> <td>• 용 봉 433-1503</td> <td>• 우 산 433-1503</td> </tr> <tr> <td>동 구</td> <td>• 남 광 673-6836</td> <td>• 동 명 222-9054</td> </tr> <tr> <td></td> <td>• 동 부 225-6001</td> <td>• 중 앙 222-9054</td> </tr> <tr> <td></td> <td>• 충 장 222-8171</td> <td></td> </tr> <tr> <td>남 구</td> <td>• 남 부 673-6836</td> <td>• 백 운 651-1833</td> </tr> <tr> <td></td> <td>• 봉 선 673-6836</td> <td>• 송 하 675-6605</td> </tr> <tr> <td></td> <td>• 진 월 671-7276</td> <td></td> </tr> <tr> <td>서 구</td> <td>• 광 천 382-5788</td> <td>• 상 무 372-2352</td> </tr> <tr> <td></td> <td>• 서광주 369-1625</td> <td>• 운 천 376-7153</td> </tr> <tr> <td></td> <td>• 치 평 376-6511</td> <td>• 풍 암 603-0311</td> </tr> <tr> <td></td> <td>• 화 정 369-1625</td> <td></td> </tr> <tr> <td>광산구</td> <td>• 운 남 952-1687</td> <td>• 월 곡 959-1920</td> </tr> <tr> <td></td> <td>• 침 단 973-2900</td> <td>• 하 남 955-0451</td> </tr> <tr> <td></td> <td>• 광 산 944-0444</td> <td></td> </tr> </table>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